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중위권 도약 ‘정조준’

내일 오후 7시 SK호크스아레나서 경남개발공사전
승점 4점 리그 6위…골키퍼 이민지 등 활약 주목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중위권 도약을 위한 열정집에 오른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6일 오후 7시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리는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7차전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인천시청과 서울시청을 차례로 상대했다.

인천시청전에서는 33-25로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따냈다. 이날 경기에서는 최수지가 7골(공격성공률 100%)·2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 MVP로 선정됐다.

또 김지현이 6골(공격성공률 46.2%)·5도움, 이효진이 4골(공격성공률 57.1%)·5도움, 함지선이 5골(공격성공률 62.5%)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골키퍼 이민지는 14세이브(방어를 46.67%)로 뒤편을 든든히 지켰다.

그러나 서울시청전에서는 28-29로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다. 이 경기에서는 김지현이 9골(공격성공률 64.3%)·3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하지만 주요 승부처에서의 실책과 상대 골키퍼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결과 올 시즌 홈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4점(2승 4패)으로 리그 6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대대적인 선수단 변화를 이룬 광주도시공사는 실책에 허덕이고 있다.

선수들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다. 패스와 캐치 과정에서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원활한 공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시청전에서는 초반 7골차까지 앞섰으나, 실책이 발목을 잡아 민기 힘든 역전패를 당했다. 결국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52개)을 기록하는 중이다.

최소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SK슈가글라이더즈(31개)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여기에 161득점 167실점으로 득실차 -6을 기록 중이다. 승부처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광주도시공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광주도시공사는 주포 김지현이 리그 득점 2위(40골)에 오르며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공격포인트(59p)에서도 2위에 오르며 맹활약 중이다. 그의 특기인 9m 중거리(16개·리그 4위) 또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무기로 작용한다.



지난 1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청과의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6차전에서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이 점프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KOHA)

베테랑 이효진은 어시스트 5위(24개)를 기록, 공격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최근 날개 쪽에서는 함지선이 원득점 3위(8골)로 팀 외곽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다.

골키퍼 이민지는 세이브 5위(65회)를

기록 중이다. 방어율도 32.18%로 주전 골키퍼들만 따졌을 때 사실상 5위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올해 첫 홈 경기인 부산시설공단전에서는 방어율 21.62%로 부진했다. 이어 인천시청전에서는 방어율 46.67%로 반등했으나, 서울시청전에서는

25%로 다시 추락했다.

광주도시공사가 공격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만큼, 팀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민지의 선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할 팀은 경남개발공사다.

현재 2승 1무 3패 승점 5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2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다만 김소라가 득점 4위(36골), 블록슛 2위(8개)에 오르며 맹활약 중이다. 그를 중심으로 한 피벗 연계 플레이가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골키퍼 오사라는 세이브 2위(79회), 방어율 3위(35.75%)에 오르며 철벽 수비를 선보이고 있다.

양 팀 상대 전적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압도적 열세다. 지난 시즌 3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5위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후 1위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가 예정된 만큼,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감독은 “서울시청전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현재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손발을 맞추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기 역시 순위를 가르는 중요한 일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면서도 “보위기를 잘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 시범경기 내달 12일 개막…KIA, SSG와 첫 경기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모든 경기 오후 1시 개시

프로야구 2026시즌 시범경기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KBO는 오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6 KBO 시범경기 일정을 4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로 치러진다. 시범경기 개막날인 3월 12일에는 KIA타이거즈-SSG랜더스(광

주), LG트윈스-NC다이노스(마산), 두산베어스-키움히어로즈(이천), 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대전), kt위즈-롯데자이언츠(사직) 등 5개 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광주, 잠실, 고척, 인천 문학, 수원, 대구, 창원 등 주요 구장의 그라운드 공사와 사용 불가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구단

은 제2구장이나 방문 경기 위주로 일정을 치른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모든 경기는 오후 1시에 개시되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으며, 비디오 판독은 각 팀당 2회 신청 가능하다. 다만 2회 연속 판정 반복 시 1회가 추가된다. 또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도 팀당 2회 부여되며, 판정이 반복되면 기회는 유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지난해 3월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5 KBO 시범 경기를 찾은 관중들 모습. 사진제공=KIA타이거즈

프로배구 최고 리베로 경쟁 ‘무주공산’

남자부 료헤이 빠져 정민수-김도훈-박경민 타이틀 3파전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가 5라운드 중반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최고 리베로를 가리기 위한 경쟁이 미궁에 빠졌다.

남녀부의 강력한 베스트7 후보였던 이가료헤이(전 대한항공)와 임명욱(IBK기업은행)이 나란히 코트에서 사라지면서 리베로 싸움 무대가 무주공산이 된 것.

한국전력 소속이던 2023-2024시즌 베스트7 리베로로 뽐냈던 료헤이는 올 시즌 상위권에서 경쟁 중인 대한항공의 후방을 안정적으로 지켰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지난 달 중순 공격력 강화 차원에서 호주 국가대표 경력의

아웃사이드 히터 게렛 이든 윌리엄(등록명 이든)을 영입하면서 료헤이는 강승일에게 주전 리베로 자리를 물려주고 V리그 무대를 떠났다. 이에 따라 남자부는 정민수와 김도훈(KB손해보험), 박경민(현대캐피탈) 3명이 리베로 타이틀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베스트7은 정규리그 종료 후 투표를 실시해 ‘기록 40%+언론사 투표+전문위원 10%+감독/주장 10%’로 선발하는 만큼 소속팀의 성적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자부에선 지난 시즌까지 6년 연속 베

스트7 리베로로 군림했던 임명욱이 부상에 발목을 잡혀 시즌 아웃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임명욱이 지난 2일 GS칼텍스와 경기 때 다친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면서 남은 시즌을 통째로 접게 된 것.

그의 빈자리로 임명욱이 지난 시즌 이후 한국도로공사를 떠난 뒤 주전으로 나서 소속팀의 선두 질주를 이끄는 문정원에게 첫 타이틀을 노린다.

디그 부문 2위(세트당 5.125개) 노란(정관장)과 수비 부문 3위(세트당 6.516개) 한디애(페퍼저축은행)도 베스트7에 도전한다.

료헤이와 임명욱이 사라진 코트에서 누가 최고의 리베로 영예를 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6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정영석, 대한민국 첫 출격

오늘 라운드로빈 경기 시작
코르티나 컬링 스타디움서

스웨덴 친남매 팀과 ‘1차전’
이어 이탈리아 금메달조 격돌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 조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팀 코리아’의 출항을 알린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7일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그에 앞서 5일 오전 3시 5분부터 밀라노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믹스더블 라운드로빈으로 경기 일정이 시작된다.

남녀 선수 1명씩 팀을 이루는 컬링 믹스더블에는 총 10개 팀이 출전해 라운드로빈을 먼저 치르며,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한국에선 김선영-정영석이 출격해 스웨덴의 이사벨라 브라노-라스무스 브라노와 1차전에 나선다.

김선영-정영석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자력으로’ 동계 올림픽 믹스더블 출전권을 따낸 조다.

2018년 평창 대회 때 장혜자-이기정 조가 출전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평창 올림픽 때 ‘팀 킴’ 강릉시청의 세컨드로 여자부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선영은 한국 컬링 선수 최초로 세 번째 올림픽에 참가한다.

강릉시청이 여자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김선영은 정영석과 팀을 이뤄 믹스더블에 도전했고, 이들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김선영. 정영석이 지난달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최종 예선인 캘리파게이션이벤트(OQE)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하며 코르티나행 막자를 뗐다.

대회 첫 상대인 스웨덴은 친남매로 구성된 팀으로, 2024년 세계 믹스더블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김선영과 정영석은 5일 오후 6시 5

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국 이탈리아의 스테파니아 콘스탄티나-아모스 모사네르와 격돌한다.

콘스탄티나-모사네르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금메달 조로, 김선영-정영석은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연이여 만난다.

연합뉴스